

2011년 10월 18일(화)

선거보도 모니터

이 것을 검증 보도라 할 수 있나?

보도국에서 막내 티를 갓 벗어난 한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선거 보도 기사요? 저도 눈 감고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배! 방법을 알려 드릴까요?

< 000기자가 본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사 작성법 >

1. 나경원 후보 측이 제시한 의혹을 쓴다.
2. 박원순 후보 측의 수세적 반론을 쓴다.
3. 그 외의 것을 한두 문장정도 덧붙인다.

그럼 끝이죠 뭐. 우리 뉴스에 그 것 말고 더 있나요?

이 기자, 막내를 갓 벗어나 아직 정치 뉴스를 잘 몰라서 하는 말 아닐까? 정말 그럴까? 하지만 나경원, 박원순 후보가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뉴스데스크>의 보도를 살펴보니, 신기하게도 정말 그렇다! 다만 야권 단일후보 확정 전에는 <000의 기사 작성법> 1에서 '나경원 후보' 대신에 '박영선 의원'으로 주어진 바만 바뀌주면 된다.

철저한 후보자 검증인데...?

그래도 혹시 이 기자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 보도를 하는 것뿐인데, 그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말하다니...' 정말 그럴까? 따져 보자.

먼저 박원순 후보에 대한 보도는 집요하다. 어제까지 박원순 후보에 대한 의혹 보도는 모두 375초이다.

날짜	보도 대상	비판 보도 내용	보도량	반론량
9/21	박원순	대기업 후원금	5초	
9/23		대기업 후원금	30초	35초
		사외이사 경력	3초	4초
9/27		대기업 후원금	10초	
		강남 60평 아파트	6초	10초
		추가 전셋집 의혹	3초	9초
		인테리어 공사 전담 및 대기업 공사 수주	10초	10초
		유학 중인 딸	3초	3초
		훈련소에서 사흘만에 귀가조치된 아들	3초	4초
9/29			론스타 기부금	15초
9/29	나경원	중증 장애인 알몸 목욕 공개	8초	18초
10/1	박원순	대기업 후원금	10초	6초
10/4		대기업 후원금	17초	
10/8		병역 기피 의혹	20초	8초
10/10		병역 기피 의혹	34초	20초
		60평대 아파트와 자녀 유학	10초	
10/10	나경원	자위대 행사 참석	6초	
		40억대 자산	7초	
10/11	박원순	병역 기피 의혹	24초	23초

		대기업 후원금	8초	
		천안함 관련 토론회 발언	40초	17초
10/11	나경원	신당동 상가 투기 의혹	8초	
10/12	박원순	병역 기피 의혹	30초	33초
		60평대 아파트와 자녀 유학	11초	
		천안함 관련 토론회 발언	9초	
10/12	나경원	신당동 상가 투기 의혹	11초	
10/14	박원순	서울대 법대 학력 의혹	19초	15초
		하버드대 객원 연구원 의혹	22초	17초
10/15		하버드대 객원 연구원 의혹		15초
10/17		병역 기피 의혹	33초	
		하버드대 객원 연구원 의혹		12초
10/17	나경원	봉하마을 관련 발언	5초	
		부친 사학 운영 관련 의혹	20초	

참고: 정책 관련 비판 제외. 보도량과 반론량은 인터뷰 포함.

산술적으로 볼 때 의혹 제기 분량이 반론 보다 126초 더 길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반론에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산술적인 균형이 그렇게 중요한가?'는 의문이 들 수 있겠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혹의 제기과 수세적 반론이 시청자들에게 주는 인상이다. 방송에 발 담고 있는 사람이면 다 안다. 아니, 이제는 상당수 시청자들도 다 알고 있는 것 같다. 아무리 반론 보도를 잘 해준다고 해도 후보의 이미지의 추락은 피할 수 없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보자. 10월 14일 <뉴스데스크>는 전날 <100분 토론>에서 있었던 나 후보와 박 후보의 공방을 보도했다.

1. 박원순 후보 서울대 법대 학력 의혹 제기과 반론
2. 박원순 후보 하버드대 객원연구원 의혹 제기과 반론
3. 두 후보의 복지 공약 한 문장.

그런데 <100분 토론>에서는 이처럼 박 후보에 불리한 것들만 논의됐던 것은 아니다. 무상급식 문제를 비롯한 오세훈 시장과의 차별화 문제, 서울시민 생활의 질 향상 문제, 한나라당 대변인 시절 나 후보의 대통령 사저 관련 발언, 일자리 창출 방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다뤄졌다. 그런데 두 후보의 정책 토론에 대한 보도는 외면하고, 유독 박 후보의 신상 검증에만 보도의 초점을 맞췄다. 그래도 굳이 신상 검증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 날 보도는 이랬어야 좀 더 공정하지 않았을까?

1. 박원순 후보의 학력에 대한 의혹 제기과 반론
2. 나경원 후보의 대변인 시절 발언에 대한 문제 제기
(또는 무상급식 문제 등 오세훈 시장과의 차별화 문제)
3. 두 후보의 정책에 대한 토론 또는 공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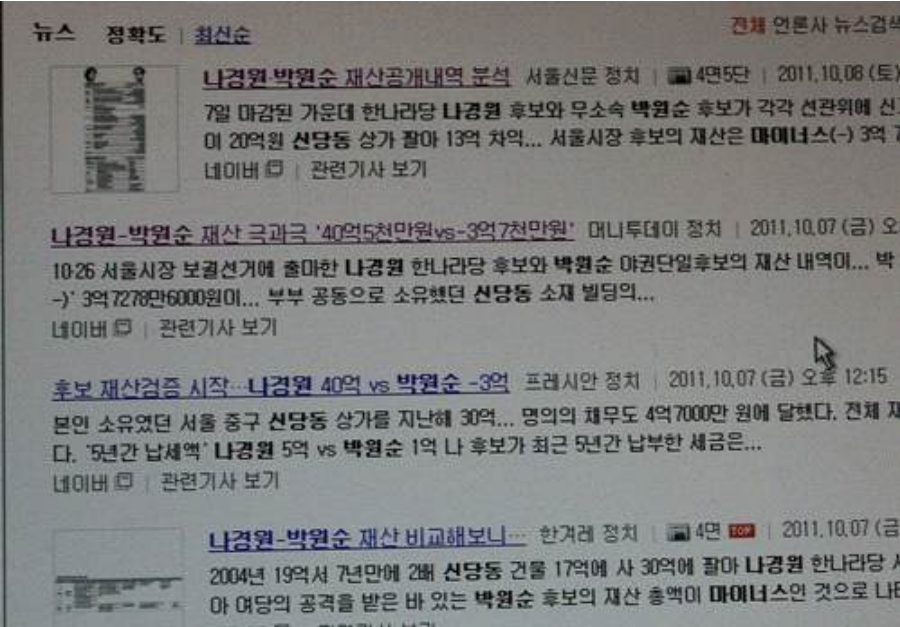
나경원 의혹은 없거나 10초 미만

이처럼 <뉴스데스크>에서는 박 후보의 정책은 잘 보도되지 않고, 의혹만 부각되고 있다. 그럼 반면에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는 어떨까? 예를 들어보자.

박원순 후보는 10월 7일 서울시장 후보로 공식 등록했다. <뉴스데스크>는 이 날 박 후보가 아파트 보증금 1억원과 밭 등이 있지만, 빚이 많아 마이너스 상태라고 재산상태를 자세히 보도했다. 하지만 전날인 6일 나경원 후보가 공식 등록했을 때는 재산상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나 후보의 재산이 40억원이 넘는다는 얘기는 그 날로부터 닷새 후에 <뉴스데스크>에서 언급됐다. 7초 언급됐다. 공정한가? 다른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는 아래 사진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나경원-박원순 후보 비교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		박원순 무소속 후보	
1963년 12월6일(48세)	생년월일	1956년 3월26일(55세)	
총계:40억5757만원 (예금 20억5691만원,건물 18억1343만원, 토지 5억1223만원,회원권 1억1000만원, 유가증권 1842만원,자동차 1450만원, 보석 700만원,채무 4억7493만원 등)	재산	총계:-3억7278만원 (토지 3902만원,건물 1억1500만원 예금 3356만원,자동차 2대 2777만원 채무 5억8814만원)	
해당사항 없음	병역	육군 이동병(사유·독자)	
현 체납액 없음	납세	현 체납액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전과	해당사항 없음	
서울대 법대	학력	단국대 사학과	
1남1녀	가족	1남1녀	

<2011년 10월 7일 한국경제>



재산 보도에 대한 문제만 형평성을 잃었었나? 아래 표를 보면 MBC가 언론사라고 스스로 부르기 민망할 정도다.

제기된 의혹	타 매체 최초 보도일	<뉴스데스크> 보도일	분량
자위대 행사 참석	9월 21일	10월 10일	6초
장애인 목록 봉사	9월 27일	9월 29일	8초
신당동 상가 투기 의혹	10월 7일	10월 11일	8초
신당동 상가 유흥주점	10월 7일		
사학 감싸기 논란	9월 26일		
대통령 사저 관련 발언 논란	10월 10일	10월 17일	5초
트위터 자화자찬 논란	10월 16일		
부친 사학 감사 제외 요청 의혹	10월 14일	10월 17일	20초

참고: 분량은 인터뷰 포함.

신당동 상가 유흥주점, 대통령 사저 관련 발언, 트위터 자화자찬 논란, 부친 사학 감사 제외 요청 의혹 등등 <뉴스데스크>에는 잘 안 나오고, 타 매체에는 잘 나오는 ‘뉴스’들이 수두룩하다. 의혹을 언급을 하더라도, 대부분 10초 미만이다. 17일인 어제 <뉴스데스크>는 나 후보의 ‘봉하마을 관련 논평’과 ‘부친의 사학 관련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박원순 후보 측은) 또 봉하마을 사저와 관련한 나 후보의 당 대변인 시절 발언이나 부친의 사학 운영 관련 의혹에 대해선 나 후보가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YN▶

우상호/박원순 후보 측 대변인
"본인 아버지 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불편해하면서 유독 박 후보에 대해선 아버지,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그 딸까지 네거티브 흑색선전으로 몰고 있습니다." < 10월 17일 <뉴스데스크> 보도 >

우리 뉴스는 이전에 ‘봉하마을 관련 논평’이나 ‘사학 운영 의혹’과 관련해 보도한 적이 없다. 그래서 어제 <뉴스데스크>를 봤던 시청자들은 나 후보가 봉하마을에 대해 무슨 말을 했는지, 나 후보 부친의 학교에는 무슨 의혹이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나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는 도무지 내용을 알 수 없다. 서너번 이상을 반복해,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박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와는 대조적이다.

이에 대한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은 적극적으로 후보 검증(또는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지만, 정책 선거를 지향해 왔던 야권에서는 나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를 자제해 오지 않았나? 그러니 나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 보도는 별로 없는 것이 당연한 거지’라는 것이다.

‘의혹 보도’ 중계방송만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 MBC가 언제부터 중계방송만 하는 언론사였나? 후보나 당 대변인, 또는 성희룡 전력의 의원이 나서서 의혹을 제기하면, 지금처럼 받아 적기만 해 왔던가? 우리가 독자적으로 열심히 취재하면 안 되나? ‘현장출동M’이나 ‘뉴스+’를 만들기 위해 많은 기자들이 현장을 누비고 있는데, 왜 선거와 관련해서는 현장 취재, 독자적인 취재를 못하는 것인가? 다른 언론사들은 잘 하는데, 왜 우리만 못하나?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MBC가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나경원 후보는 <뉴스데스크>의 덕을 보고 있다. 박원순 후보에 대한 계속된 ‘검증 중계 보도’로 박 후보의 이미지는 계속 나빠지고 있다. 반면 나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는 거의 없기 때문에, <뉴스데스크> 때문에 나 후보의 이미지가 나빠진 일이 별로 없으니 말이다. 이것을 두고 과연 제대로 된 검증 보도라고 할 수 있을까?

사족

타 방송사의 예를 들면서 ‘그래도 우리가 낫다’며 억울해 하는 기자들이 있다. 그런데 민실위 위원들과 상당수 기자들의 판단으로는 우리 뉴스가 KBS나 SBS 뉴스보다 별로 나은 것도 없고, 또 우리의 경쟁상대는 ‘하향 평준화된 방송 뉴스’가 아니라 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코미디를 못 따라가는’ MB 사저 백지화 보도

갑작스런 <뉴스데스크> 톱 보도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내곡동 사저를 전면 백지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어제, <뉴스데스크>는 두 개의 리포트를 톱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뉴스데스크>의 톱 뉴스는 너무 갑작스러웠다는 것이 민실위 위원들의 지적입니다. <뉴스데스크>가 그 동안 대통령 사저 관련 보도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타 매체와 <뉴스데스크>의 보도를 비교해 보죠. 굳이 한겨레나 경향 말고, 스스로 보수지를 자처하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두 신문과 비교해 봤습니다. <뉴스데스크> 기사를 조선이나 중앙이 기사를 쓴 시점과 비교하기 위해, 편의상 <뉴스데스크>를 다음 날 아침 신문 기사와 비교하겠습니다.

날짜	뉴스데스크	조선일보	중앙일보
9일	1. 이 대통령, 퇴임후 내곡동 새 사저 거주	1.李대통령 퇴임 후 사저(私邸), 논현동 집 대신 내곡동에;왜 내곡동? ... 2.李대통령 경호동 부지 42억...	1. 퇴임 이후 내곡동 가는 MB 왜?
10일	1. 정치권,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놓고 공방	1. [사설] 李 대통령, 私邸 본인 명의로 돌려놓아야	1. 민주당 “MB 사저 다운계약서 의혹” 청와대 “문제없다” 2. [사설] 대통령 사저 관련 해명은 미흡하다
11일	1. '내곡동 사저' 대통령 명의로 이전 결정 (단신)	1.李대통령, 사저 땅 계약 5개월 넘게 명의 안 옮겨	1. 홍준표 “MB 내곡동 사저 줄여라” 2. 내곡동 사저, MB 명의로 바꿨지만 ...
12일	1. 끊이지 않는 '대통령 사저 논란'... 규모 축소요구	1. 청와대 "경호부지 축소... 남는 땅은 처분 검토중" 사저 인근엔 이상득 의원 땅	1. 청와대 “사저 경호 부지 줄이겠다” 2. [사설] 대통령 사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13일		1. "시형(대통령 아들)씨, 친척에 빌린 6억원 이자 안갸아" 2. 羅 "MB 사저, 상승세 발목 잡을라" 朴 "네거티브 대응책 고심"	1. “MB 사저, 땅 주인 손해 본 계약”
14일		1. 청와대 일부, 사저 파문 인책론 2. [사설] 李 대통령 내곡동 私邸 백지화 말고 달리 길이 없다	1. 민주당 “대통령실, MB 사저 8억대 지원 의혹”
15일			
16일		1. 청와대, 李대통령 내곡동 사저 백지화 검토 2. 청와대 참모 대부분 "내곡동 사저 백지화해야" 3. 김인중(경호처장)·김백준(총무기획관) 책임론	1. 내곡동 사저 전면 재검토 2. “MB 아들 개발이익 볼 수 있는 계약” 3. 한나라 “해볼 만한 선거, 내곡동 약재 치워달라...

앞서 지난 주 발간된 민실위 메모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와 같이 9일 <뉴스데스크>의 첫 보도는 의혹 제기는 없고 청와대의 해명만 있는 기사였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여야의 공방 형식으로 의혹을 ‘단순 중계방송’했습니다. 11일에는 ‘내곡동 사저를 대통령 명의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며 단신으로 전했습니다. <뉴스데스크>만 본다면 시청자들은 사저를 둘러싼 논란이 명의 이전 결정으로 ‘일단락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보수 진영도 심각하게 여겼던 사안

반면 조선과 중앙은 청와대의 ‘명의 이전’ 발표가 나기도 전에 이미 사설을 통해 ‘대통령의 사저관련 해명이 미흡하다’면서 ‘본인 명의로 돌려 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사저를 줄이라는 여론의 반응도 계속 전했습니다. 보수 진영도 그 만큼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MBC는 단신으로 사안을 다뤘던 것입니다.

나흘간 보도 실종됐다 갑자기 튀어나온 ‘백지화’

목요일인 13일부터는 심지어 관련 보도가 사라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선과 중앙은 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은 물론, 소속 기자들이 부동산 관계자 등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취재한 기사까지 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배임 의혹, 이시형씨 탈세 의혹, 이상득 의원 인근 땅 논란, 경호 부지 구입비 유용 논란, 지목 변경 특혜 논란 등을 조목조목 보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은 사설을 통해 ‘대통령 사저 백지화’를 촉구하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 갔습니다.

두 신문은 독자들에게 대통령 사저 문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또 어떻게 전면 백지화라는 운명을 맞게 됐는지 모든 과정을 잘 전달했습니다. 반면 <뉴스데스크> 시청자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대통령 사저 문제는 이제 잠잠해 진 것 같았는데, 어? 갑자기 왜 백지화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자적인 취재는 전혀 없었을뿐더러, 중계방송도 제대로 안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할 말 하는 코미디’ 에 비해 ‘초라한 뉴스’

16일 방송된 <시사매거진 2580>은 대통령 사저 문제를 시원하게 꼬집어주는 라디오 코미디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다시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대통퀴즈’ 참 재미있는 코너입니다. 한 기자는 “우리 뉴스가 코미디를 못 따라 간다”며 <시사매거진 2580>을 본 소감을 한탄하며 전했습니다.

16일 <시사매거진 2580> 보도 가운데 ‘대통퀴즈’ 코너

기자: 대통령 사저 매입에 대한 의혹을 다룬 기사는 곧바로 '아방궁'이라는 단어를 맞추는 퀴즈로 바뀌고...

◀SYN▶

↓ 최양락: 굉장히 크고 화려한 집.

이명박: 정답!

최양락: 네, 정답은?

이명박: 내 집! 땡!

최양락: 내 집이요?

이명박: 그래, 내가 살 집... 땡!

최양락: 아니.. 그건 오늘 의미와는... ↗

이명박: 은퇴기념 개인주택... 땡!

이명박: 노후대책용 럭셔리하우스...

최양락: 아뇨, 그것도 정답으로 안 되구요...

이명박: 서초구 내곡동 사저...

최양락: 저기요, 죄송한데...

이명박: 아들 명의로 된 효도의 집

- 4 -